

NOT.N 독서 미니 모의고사 - 해설편

[1~4] 헤드폰의 소리 재현 기술과 음향 설계 원리

#1 - 내용 일치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선지는 “다이내믹 드라이버는 정전기적 인력을 활용하여 진동판을 움직이므로...”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문에서는 다이내믹 드라이버의 작동 원리를 전류와 자속의 상호작용에 의한 로런츠 힘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전기적 인력”은 정전식 드라이버의 작동 원리에 해당한다.

지문 근거

“보이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로런츠 힘의 작용으로 코일이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이 진동판에 전달되어 음파를 생성한다.”
“정전식 드라이버는 초박형 진동막에 정전기적 인력을 가해 정밀하고 투명한 고음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

■ 오답 풀이

①

헤드폰은 귀에 밀착되므로, 공간감 있는 음장 구현이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정 기술(HRTF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됨.

지문 근거

“헤드폰은 각 귀에 독립적으로 밀폐된 유닛을 배치하므로 자연스러운 방향성과 거리감을 재현하기 위한 추가 처리가 필요하다.”

②

소리의 품질은 진동판, 보이스 코일, 자석 자속 밀도 등 여러 요소의 정밀한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고 서술됨.

지문 근거

“이때 생성되는 소리의 품질은 진동판의 재질과 두께, 코일의 권수, 자석의 자속 밀도 등 여러 요소의 정밀한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

④

임피던스 불일치 시 출력 손실·왜곡이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고급 헤드폰에는 정합 회로가 내장된다고 설명됨.

지문 근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급 헤드폰에는 임피던스 정합 회로가 내장되며...”

⑤

BA 드라이버는 소형화에 유리하고 고주파 응답이 뛰어나며, 인이어 모니터(IEM)에서 사용된다고 기술됨.

지문 근거

“BA 드라이버는 작은 크기에도 높은 주파수 응답을 가능케 하며, 인이어 모니터 등에서 선호된다.”

#2 - 개념 이해 - 다이내믹 드라이버

정답: ②

■ 정답 풀이

②

보이스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석 주변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며 로런츠 힘이 발생하고,
이 힘이 진동판을 진동시켜 음파가 생성된다고 지문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다이내믹 드라이버는 전자기적 원리에 기반하여 음향 출력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지문 근거

“보이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로런츠 힘의 작용으로 코일이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이 진동판에 전달되어 음파를 생성한다.”

■ 오답 풀이

①

자석 자체가 진동하는 구조가 아니며, 전류-자속 상호작용이 핵심 원리임.
진동 주파수는 품질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자속 밀도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은 지문에서 근거 없음.

③

보이스 코일이 먼저 움직여 진동판에 진동을 전달하는 구조임.
진동판이 먼저 움직인다는 설명은 인과관계 오류.

④

드라이버 구성 요소들이 모두 회전하지 않음.
코일은 진동(선형 운동)을 통해 음파를 생성하며, 회전력과 무관.

⑤

로런츠 힘은 자속과 전류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며, 코일에 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오류.
일반적인 코일 구조로도 다이내믹 드라이버는 충분히 작동함.

#3 - <보기> 적용

정답: ④

■ 정답 풀이

④

선지는 “A는 저임피던스 장비와 연결 시 출력 손실이 적어 음압 유지에 유리하므로...”라고 했으나,
A는 250Ω 고임피던스 제품이며, 저임피던스 장비와 연결하면 출력 손실이 오히려 커진다.
따라서 오히려 출력 음압이 약해져 전용 앰프 등이 요구되며, 일반 휴대기기와의 연결은 적합하지 않다.

지문 근거

“헤드폰과 오디오 출력 장치의 임피던스가 불일치하면 출력 신호가 손실되어 음압이 약해지거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A는 고임피던스 제품으로, 일반 기기보다 전압 공급이 높은 앰프가 적합함.
전용 앰프와의 조합이 적절하다는 판단은 지문과 일치.

②

B는 플래너 마그네틱 드라이버로, 왜곡률이 낮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음.

A보다 정밀한 음향 재현 가능성 있음 → 적절.

지문 근거

“플래너 마그네틱 드라이버는 낮은 왜곡률과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다.”

③

B는 HRTF 적용, A는 미적용 → 공간감과 거리감 구현에서 B가 우위.

지문 기술과 일치.

⑤

A는 HRTF 미적용 → 공간 방향성 재현 기술 없음 → 한계 존재.

판단 적절.

#4 - 어휘 의미 판단

정답: ②

■ 정답 풀이

②

지문의 ‘재현’은 실제 청취자가 듣는 공간적 소리(위치, 방향, 거리 등)를 모델링 및 기술 처리로 복원하는 과정을 뜻한다.

즉, 현실의 소리를 유사하게 모방하는 방식, 즉 청각적 시뮬레이션이 핵심이다.

지문 근거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DSP)을 이용하여

원음에 HRTF 데이터를 적용하면, 가상 음원의 위치를 현실감 있게 재현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파일 복구는 디지털 무결성 유지 또는 복원 기술로, ‘재현’의 의미와는 거리 있음.

③

단순 증폭은 음향 출력 강도 조절로, 방향성·현실감과 무관.

④

주파수 강조·제거는 톤 컨트롤 또는 이퀄라이징(EQ)의 개념.

⑤

잔향 부여는 리버브 효과 처리로, 특정 환경의 느낌을 만드는 기술일 뿐, ‘현실감 있는 위치 재현’과는 다름.

[5~10] (가) 금융위기와 통화정책의 작동 조건, (나) 디지털 화폐의 정책적 가능성과 통화주권의 재구성

#5 - 내용 일치/이해

정답: ②

■ 정답 풀이

②는 (가) 지문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 또는 왜곡된 요약으로, 지문과 불일치한다.

지문에서는 디레버리징 국면에서 전통적 통

화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중단된다'는 표현은 지나친 해석이다.

실제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 완화, 포워드 가이드, 마이너스 금리 등)을 통해 여전히 대응이 시도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경제 심리와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지문 근거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과 기대관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내포한다.”

→ 중단이 아닌 '방향 전환'과 '복합 대응'이 강조됨.

■ 오답 풀이

① (가):

“위기의 전개는 비대칭적 정보와 전염성을 동반하며… 금융 부문을 넘어 실물경제로 전이된다.”

→ 지문과 일치.

③ (나):

“CBDC는 민간의 과도한 신용 창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된다.”

→ 지문과 일치.

④ (나):

“통화주권의 파편화로 이어질 수 있다.”

→ 통화 정책 경로가 우회되며, 정책 권한

이 알고리즘 등에 위임될 수 있다는 지문 표현과 일치.

⑤ (나):

“정책 집행의 정밀도와 기민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 직접 이체, 조건부 유통 등으로 기존보다 정밀함이 강조됨.

#6 - 개념 이해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은 지문에서 디레버리징을 정의한 문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디레버리징은 경제 주체(가계, 기업, 정부 포함)가 부채를 감축하고 소비·투자를 억제하는 과정으로, 금융위기 이후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지문 근거

“①디레버리징은 경제 주체들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부채를 축소하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과정이다.”

■ 오답 풀이

①

부채 축소가 아닌 증가를 의미하므로 개념을 정반대로 오해함.

②

금리 인상은 소비 억제 효과를 가지므로 논리 모순.

④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팽창 억제는 긴축 정책이지 디레버리징 개념과 다름.

⑤

디레버리징은 부채 감소이며, 구조 조정과 부채 급증은 상반된 개념.

#7 - 상황 이해

정답: ④

■ 정답 풀이

④는 예금 통화를 실물 자산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

예금 통화는 민간은행이 발행한 지급 약속, 즉 신용 기반의 통화이며, 본질적으로 실물 자산이 아닌 금융 자산이다.

지문에서는 이를 중앙은행 발행 화폐(현금)와 비교하여 이중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지문 근거

“이 경우 ㉠화폐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경로가 우회된다.”

■ 오답 풀이

①

현금(중앙은행) vs 예금(민간은행) 발행 주체 구분은 지문의 ‘이중 구조’ 핵심.

②

예금 통화가 직접 발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통제력 약화 가능성 언급과 일치.

③

민간은행이 예금 발행 → 신용 창출 과정은 지문에서 명시된 통화 권력 분산의 원인.

⑤

발행 주체가 다르면 통화정책의 경로(중앙 → 시중은행 or 개인)도 달라진다는 내용과 일치.

#8 - 정보 이해

정답: ②

■ 정답 풀이

㉠ 공개시장조작(OMO):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 국채 등을 매매하여 유동성 및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개인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며, 유통 조건 설정 등이 가능해 정책의 직접성과 정밀도가 높다.

지문 근거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조정, ㉠공개시장조작(OMO)을 통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특정 계층에게 일정 금액 이체, 조건부 유통 등...”

■ 오답 풀이

①

공개시장조작은 소비자가 아닌 금융기관 대상 거래다.

③재정 적자 보전은 재정 정책, 지급 준비율 조절은 다른 정책 수단이다.

④

OMO는 환율 안정과 무관, 외환보유액 조절은 별도 정책이다.

⑤

물가 연동 채권과는 관련 없고, CBDC는 기술적 수단이자 통화 전달 경로이다.

#9 - <보기> 적용

정답: ②

■ 정답 풀이

②는 B국의 CBDC 도입을 신용 창출 확대 및 통화 승수 확장이라는 정반대 의미로 해석하였다.

지문에서는 CBDC가 민간의 과도한 신용 창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즉, 신용 축소 수단으로 기능하며, 통화 승수를 억제하는 방향이다.

지문 근거

“이를 통해 민간은행의 과도한 신용 창출을 통제하고자 했다.”

→ 통제 목적이지만 확장 목적 아님.

■ 오답 풀이

①

A국은 외환 자본 유입을 위해 금리 인상 → 통화 가치 방어. 내용 일치.

③

C국은 민간 디지털 자산 수용 → 통제 가능성 확보. 일치.

④

A국의 금리 인상은 디레버리징 상황과 충돌. → 고차원 해석이 요구되나 일치.

⑤

CBDC는 새로운 통화 조정 수단으로 지문에서 반복 강조됨.

#10 - 어휘 의미 판단

정답: ①

■ 정답 풀이

㉔는 디지털 화폐가 통화 권력 분산이라는 긍정적 기능과 함께, 정책 통제 실패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뜻이다.

즉, 중앙은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민간·시장·기술 알고리즘 등과 권한을 공유함으로써,

정책 유연성과 제어 불능의 위험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의미한다.

지문 근거

“통화 권력의 분산과 조절 실패 가능성이라

는 ㉔양면성을 내포한다.”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 오답 풀이

②

실물경제와 단절 해소는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으며, 추가된 의미다.

③

권력 분산 → 중앙은행 독점 기능 강화는 논리 모순.

④

신용 창출 확대 → 유통량 감소 → 당국 지배력 강화는 인과관계 왜곡.

⑤

환율-물가 목표 충돌은 정책 목표의 이중성이지, ㉔의 권력 분산 개념과 무관.

총평

이번 미니 모의고사는 총 2개의 독서 지문과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지문은 ‘헤드폰의 음향 원리 및 드라이버 기술’을 다룬 기술·과학 정보 텍스트이며, 두 번째 지문은 ‘금융위기와 통화정책의 변화, 디지털 화폐의 등장’이라는 복합 경제 주제를 다룬 고난도 경제 지문이다. 두 지문 모두 최근 수능 독서 지문이 요구하는 복합 정보 통합력, 추론력, 적용 이해와 응용 사고력을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최상위권 중심의 변별력을 강화한 고난도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1. 헤드폰 음향 기술 지문 - 정보 통합 및 과학 원리 응용 능력 검증

해당 지문은 전통적인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밸런스드 아마추어, 플래너 마그네틱, 정전식 드라이버 등 다양한 음향 기술의 작동 원리와 그 차별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 임피던스 개념, HRTF, DSP 기술 등 청취 환경 개선 기술까지 아우르며, 단순 암기형 정보 이해를 넘어 유기적 판단을 요구하는 고난도 요소가 도입되었다.

2. 금융위기와 디지털 통화정책 지문 - 복합 경제 담론 분석 및 정책 판단 능력 요구

두 번째 지문은 (가)와 (나)의 구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 기제와 그에 대한 통화정책의 한계,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 화폐의 정책 도입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디레버리징, 유동성 함정, OMO, CBDC 등 경제·금융 정책 용어를 실제 맥락에 맞춰 정교하게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념 암기나 정의 유추 수준을 넘는 맥락적 적용 능력과 비판적 시야를 동시에 요구한다.

전체 난이도 및 학습 방향 제언

이번 미니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 대비 고난도 비문학 지문 학습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단순한 단편적 정보 이해보다는 정보 간 상호 연계, 개념 간 위계 구조, 정책 수단의 효과 비교 및 가치 판단 등 종합적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요구하였다. 지문 자체의 정보 밀도 또한 높게 구성되어 있어, 정확한 단락별 핵심 파악 능력과 단어 간 논리적 연결성 해석력이 부족한 경우 중도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학습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핵심 개념을 단문 정의식으로 정리하되, 실제 문맥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반복 확인할 것.

‘적절한 것’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에서 선지 판단에 주어진 전제 구조가 지문의 논지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훈련을 할 것.

경제·과학 지문 등 비문학 정보성 글에서 요구하는 ‘정책 효과성’ 혹은 ‘기술 구조’의 인과 구조에 대해 시각화해보는 사고 전환 훈련을 병행할 것.

이번 NOT.N 미니 모의고사는 실전 수능의 고난도 영역 대비에 있어 최적화된 훈련 자료로 기능한다.

지문 자체의 난도는 실제 수능보다 다소 높게 설계되었으나, 이를 소화해낼 수 있다면 수능 독서 영역에서 최상위 등급 확보에 유의미한 초과 달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비문학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본 연습지를 반복적으로 분석할 경우, 지문 구조 파악, 정보 간 관계 정리, 응용 사고력 강화라는 3대 독해 역량을 균형 있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빠른 정답

③	②	④	②	②
③	④	②	②	①

등급컷(참고용, 감점 기준)

총점 : 22 (제한 시간: 22분)

1등급 : 19

2등급 : 17

3등급 : 14

4등급 : 10